



오직 제자훈련, 한자리에서 한 명만 있어도 한다!



오석준 목사는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20~30대 초반까지 외국인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이후 충신대 신대원을 졸업했으며, 리폼드신학교(D.Min)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해운대제일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다가 부산에림교회를 개척했다. 이후 경산당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10년 동안 사역을 한 후, 2005년 8월부터 통영 한우리교회 담임목사로 섬기며 제자훈련을 인도해 오고 있다. 26기로 CAL세미나를 수료한 이후, 지금까지 통영지역에서 유일하게 제자훈련을 붙잡고, 한 영혼 철학을 지켜내며 제자훈련을 인도해 오고 있다.

동양의 나폴리 vs 신앙의 기복이 심한 통영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 해안선을 끼고 상가와 주택가가 즐비해 있는 통영은 산중턱까지 회고 파란색의 집 지붕이 가득해 기본 좋은 휴양도시라는 인상을 물씬 풍긴다. 그러나 통영은 과거 왜군의 잦은 침략에 맞서 싸우던 부침이 많았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 통영의 전체 인구는 13만 명인데, 복음화율은 겨우 6%에 불과하다. 그만큼 복음이 스며들기 힘든 지역이다. 더구나 바닷가 문화 그 고유의 특수성은 사람의 마음 문을 잘 안 열게 하고, 신앙의 기복도 심하게 만들었다. 오늘 당장 굶어도 그물 한번 던지면 몇천만 원치의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한방주의’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오래 목회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며, 제자훈련을 한다는 그 자체가 홀로 한산대첩을 치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 통영지역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말씀으로 꾸준히 제자의 삶을 선도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 바로 통영 한우리교회 오석준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홀로 왜군과 대적했던 것처럼, 통영지역 전체를 통틀어 혼자 제자훈련을 붙잡고 있었다.

통영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 개척된 교회들이 많다. 통영에서 가장 큰 충무교회에서 나와 개척된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마음이 안 맞으면 금방 본 교회를 떠나, 다시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게 이 지역에서는 일반화되었다. 통영 한우리교회 역시 규모가 좀 있었던 인평교회에서 갈라져 나와 개척된 교회 중 하나다.

이 교회에 부임해 온 오석준 목사는 부산출신으로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인 회사를 다니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3대째 신앙가문에서 성장했던 그는 어느 날 미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침상에서 기도하던 중 어릴 때 목사로서 소명 받은 것을 떠올리게 되었고, 다리가 회복되자 30대 초반에 총신대 신대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의 목회자로서의 평탄하지 않은 길이 시작되었고, 한우리교회와의 예정된 만남도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아들람 굴에서 한없이 낮추시던 시절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북삼제일교회 우봉석 목사, 양산 평산교회 강진상 목사 등 이른바 제자훈련을 하는 목회자들이 당시 오석준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동기들이다. 그때 학구파에 성실히 공부하던 동기들이 지금은 제자훈련 목회자가 되어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뿌듯하다는 오 목사. 그는 총신대 신대원 1학년을 다니면서 해운대제일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며, 일 중심적이었던 담임목사님 밑에서 거의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목회자로서, 또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한 가득이었다. 그때 당시 베스트셀러인 『16살, 네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의 저자인 김재현 전도사를 만나 사랑방 전도세미나에 참석해 제자훈련에 강한 도전을 받았다. 이후 출간된 옥한흠 목사의 『평신도를 깨운다』를 읽은 후, 그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 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가슴 뛰는 삶을 확신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벅찬 감동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이다.

이후 해운대제일교회 대학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5개 대학 캠퍼스를 돌며 제자훈련을 인도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 임상실습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IVF와 네비게이트 교재로 기초양육을 하며, 스스로 제자훈련 사역에 대한 기쁨에 도취되어 갔다. 어설프지만 정말 열심히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장년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해보고 싶다는 소망의 싹이 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1994년 12월 해운대제일교회를 사임하고, 곧바로 1995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CAL세미나가 열리던 시절, 26기로 참가한 그는 강의를 듣는 내내 신발 정리가 착착 되듯이 목회에 대한 정리가 되고, 어떻게 자신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길이 확 열리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옥한흠 목사의 ‘광인론’ 강의를 듣는 내내 ‘목회는 열정 없이는 안 된다’라는 다짐을 하곤 했다고 한다.

그런 그는 잠시 개척이나 다름 없었던 부산에람교회에 부임했다. 이 시기의 상황을 두고 오 목사는 “1년 3개월 동안 하나 님께서 저를 완전히 낮춘 기간이었다”며 “마치 아들람 굴에 있었던 다윗과 같았다”고 회고한다.

우선 개척 교회다 보니, 정말 훈련을 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미쳐야 하는데, 미칠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다.

이후 그는 1996년 4월 경산당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밤낮으로 열심히 목회한 결과, 1년 만에 교회는 배로 부흥하게 되었고, 1997년 곧바로 교회 건축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곧바로 터진 IMF로 인해 오 목사는 2년 간 죽을 고생을 하며 건축을 마무리해야만 했다. 자신의 집, 퇴직금, 모아둔 돈 모두를 건축헌금으로 쏟아 부었다. 담임목사로서 당연한 듯 보여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그저 경산당리교회에서 꿈에 그리던 제자훈련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마침 친누나가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총 순장을 맡고 있다 보니, 귀동냥으로 '제자훈련은 장로들부터 해야 한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당리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해도 되겠다 싶어 장로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했으나, 보수적이고 고집 센 장로 대상 1기 제자훈련은 쉽지 않았고, 결국 중간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나 제자훈련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그가 다시 붙잡은 것은 경산당리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자훈련이었다. 15~20명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도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았다. 5년 동안 경산당리교회에서 청년 제자훈련이 지속됐는데, 기존 양육교재와 제자훈련 교재를 교대로 실시했다. 그때 제자훈련 했던 청년들이 이제 장년이 되어 아직까지 오 목사와 교제의 끈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오 목사의 장년 제자훈련에 대한 욕망은 계속 커져만 갔다.

은사 중심의 교회, 말씀으로 토양을 갈아엎다

갈급함 속에 있던 오 목사는 통영 한우리교회에서 급히 담임목사를 찾겠다는 선배 목회자의 적극적인 권유와 재촉으로 2005년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그가 경산당리교회의 10년 사역을 접고, 통영 한우리교회의 부임을 결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바로 통영 한우리교회 교인 대다수가 30~40대 젊은층으로, 80명 정도의 성도 수가 모인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노년층이 많았던 경산당리교회와 달리, 통영 한우리교회 교인 대다수가 30~40대층이라면 꿈에도 그리던 제자훈련을 원 없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 보니 교인들의 나이만 젊었지, 완전히 은사 중심적인 교회였다. 통영지역 내 인평교회 담임목사가 개척해서 나온 교회였던 한우리교회는 전 교인이 새벽마다 나와 방언과 예언, 입신 등이 일상화되다시피 한 기도원과 같은 분위기였다. 당시 교인 수가 약 80여 명이었지만 부자들이 꽤 많이 있는 교회로 전임목사가 떠날 수 없는 왕국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전임목사가 불미스런 일로 급하게 선교사로 떠나며 후임자를 찾는 바람에 오 목사는 교회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부임을 하게 된 것이다.

인수인계 자료는 딸랑 A4 한 장이었고, 교회 사무 비품도 복사기 한 대와 전화기 한 대가 전부였다. 오 목사는 한마디로 암담했다고 한다. 한때 통영



그가 경산당리교회의 10년 사역을 접고, 통영 한우리교회의 부임을 결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바로 통영 한우리교회 교인 대다수가 30~40대층이라면 꿈에도 그리던 제자훈련을 원 없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지역은 IMF도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돈이 넘쳐났었고, 어선 문화가 자리 잡아 우상숭배가 지금도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전도가 굉장히 어렵고, 성도들이 복음보다는 감성이 앞선 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분위기는 통영 한우리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지적이고 학구적인 오석준 목사와 은사 중심의 한우리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잘 맞지 않았다.

그러나 오 목사는 은사 쪽으로 치우친 교인들의 영성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확신반부터 시작했다. 당리교회에서는 사랑의교회 새가족반 교재를 사용했으나, 통영 한우리교회에서는 좀 더 강한 구원의 확신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했기에 제자교회 확신반 교재로 사역을 시작했다. 확신반 이후에는 성장반을 이어갔다.

통영 한우리교회 현관문을 열면 바로 왼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오 목사는 이 방을 ‘인간 개조방’이라고 소개한다. 허름했던 그 방을 리모델링하고, 처음으로 소그룹 방을 겸한 사무공간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책상에 앉은 한우리교회 성도들은 확신반이라는 이름 아래 오 목사로부터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말씀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 들었다. 이후 제자훈련도 이 방에서 했으며, 진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나 둘씩 배출된 것도 이 방에서부터였다.

그러나 인평교회에서 나와 한우리교회를 세운 은사 중심의 주축 멤버인 평신도들은 오 목사의 확신반 양육훈련에 대해 반발했다. 학구파인 오 목사가 기도파인 자신들과 맞지 않고, 더욱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여겼던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자신들이 교회 리더였는데, 확신반을 통해 주목받지 못했던 교인들을 오 목사가 집중하는 것이 별로 달

갑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한 달 확신반을 하고 난 후, 성장반을 할 즈음 헌금을 많이 내던 두세 가정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교회를 아예 나가버렸다. 그러나 오 목사는 “3년을 지켜보고, 그래도 아니ا 싶으면 이야기하라”고 남아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며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

그래서 2007년 확신반을 수료한 여 집사 중 1기 여자 제자반을 양육과 훈련을 겸해 전투적으로 제자훈련할 수 밖에 없었다. 젊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하고자 통영 한우리교회에 오게 된 오 목사는 교회 개척 핵심 멤버들이 떠났다고 해서 훈련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제자훈련 1기에 무조건 자신의 모든 열정과 생명을 걸었다.

그래서 오 목사나 훈련생 모두 죽을 고생을 할 만큼 1기 제자훈련은 철저하게 진행됐다. 다만 한우리교회 성도들의 평균 학력이 고졸이다 보니 사랑의교회와 같은 수준으로 훈련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교재와 커리큘럼은 똑같이 했으며, 필독서와 큐티는 한우리교회에 맞게 조절을 했다.

1기 제자반에서 진주가 나온다

12명으로 시작된 1기 제자훈련은 끝내 8명만이 수료했다. 하지만 오 목사에게는 그 8명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었다. 사실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선발이 아닌 무작위로 ‘훈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라’고 광고하자, 생뚱맞은 인물들도 지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꿈에도 그리던 제자훈련 1기였기에 전투적으로 임했던 오 목사의 집념이 결과적으로는 진흙 속에서 8명의 진주들을 캐내게 했다. 그래서 그는 훈련생을 선발할 선택의 여지

수료생 인터뷰

“광인 같은 목사님, 매시간이 감사” 장영숙 집사(1기 제자훈련 수료생)

한우리교회 개척 초기 멤버인 장영숙 집사는 다른 지역에서 제자훈련에 대한 얘기를 듣고 궁금해 하던 차에 새로 부임한 오석준 목사를 통해 1기 훈련생이 되었다.

훈련에 대한 반대로 기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쉬움도 겪었지만, 장 집사는 제자훈

련을 받으면서 오 목사의 목회 철학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자훈련에 대한 열정과 한 생명에 대한 목사님의 사랑은 정말 광인 같았어요. 이에 도전받은 훈련생들도 정말 열심히 훈련받았고, 교회에 든든한 군사들이 세워졌죠.”

장 집사는 “제자훈련 매시간이 눈물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대로 채워졌다”면서 “매주 적응을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또한 부부관계도 좋아져 “하나님이 제자훈련을 통해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을 느꼈다”는 말을 덧붙였다.

가 없는 수많은 개척 교회 목회자들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은미 집사는 “얼마나 훈련이 힘들었는지, ‘하나님 제발 우리 목사님을 한 주만 휴가 보내 달라’고 기도했을 정도”라며 웃을 짓는다. 그런데 정말 오 목사가 노회 행사로 뜻하지 않게 한 주를 쉬게 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생겼다.

오 목사는 “8년 전 이들은 제자훈련의 ‘제’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끝까지 훈련을 잘 따라오고, 지금은 그들의 모습에서 부러울 정도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며 “그들 스스로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오늘 자신들의 삶에 이런 행복한 변화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소개한다.

사실 오 목사는 방언과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았던 교인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과 인격의 성숙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1기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한다. 죽기 살기로 1기 제자훈련은 끝나쳐야 한다는 각오로 임한 오 목사는 교회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 그저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한다.

지금은 안수집사 중 한 분이 된 한 성도는 처음 오 목사가 부임했을 때 불신자 상태였는데, 오 목사가 첫 심방을 왔을 때

방에 누워서 아는 체도 하지 않았었다. 그런 그가 제자훈련 받은 지금은 중직이 되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제자훈련 받고 인격이 변화된 아내의 영향력이 컸다.

오 목사는 제자훈련 1권 1과부터 성도들의 인격 성숙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다. 그런 영향력 때문인지, 제자훈련 받은 평신도들은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에서 겸손한 섬김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말씀으로 잘 훈련된 1기 제자반 수료생들이 한우리교회의 주축 세력이 되었고, 목장 소그룹 리더인 목자 8명이 든든하게 세워졌다. 한우리교회는 가정교회 형태의 목장 소그룹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화평교회 가정교회세미나도 다녀와서 소그룹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많은 참고를 했다.

8명의 수료생들이 주로 목자 사역을 감당하지만 오 목사는 목자 사역이 사역의 일부분일 뿐 전부는 아니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부교역자가 없는 한우리교회에서 수료생들이 교사와 주일학교 학생을 위한 봉사 사역도 겸할 것을 권유한다. 또 목자로서 말씀을 보는 안목을 심어주고, 목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소그룹 인도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3기 여자 제자반 훈련을 잘 받았던 한 훈련생이 갑자기 신천지에 들어가 제자훈련 목회자로서 자존심이 상한 적도 있었고, 조선소에서 일하던 3기 남자 제자반 훈련생이 훈련을 잘 받다가 강원도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다 키운 자식 뺏기는 쓰라린 심정을 맛보기도 했었다.

수료생 인터뷰

“벽 없는 사랑 깨닫고 아버지와 관계 회복” 박광순 집사(3기 제자훈련 수료생)

2007년 한우리교회 27기 새생명축제 때 한 성도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온 박광순 집사.

“첫날부터 꼴 같은 말씀을 듣고 교회에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확신반, 성장반을 했고, 제자훈련 권유를 받았죠.”

부담감과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받은 제자훈련은 단 2명의 훈련생으로 시작해 홀로 수료를 하게 됐다.

“힘들기도 했지만, 제자훈련의

감동이 너무 커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박광순 집사는 특별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삶에 적용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

“수술을 받으신 아버지를 한 달간 밤새 간호하면서 벽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간절해졌다는 박 집사는 “지체들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많은 실패 가운데 열정이 유지된 이유?

오 목사는 2기 제자반 때부터 확신반과 성장반에서 최소 1년 6개월 간 양육된 평신도 중에서 훈련생을 선발해 제자훈련을 인도했다. 이후 ‘영적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제자훈련 입문반을 도입해 훈련 전 최소 2년 간 양육을 한 후 제자훈련을 받도록 했다. 불신자와 기존 성도의 비율이 7대 3이다 보니, 아예 생짜배기 신자들에게 일일이 가르쳐야 할 부분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성경을 보는 눈을 길러준 후, 제자훈련을 인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통영지역 특성상 성도들이 ‘내 교회’라는 의식도 약하고,

오석준 목사는 한 순간도 제자훈련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제자훈련은 예수님이 하신 목회 본질이기에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목회를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직장문제와 경제적인 이유로 이동도 잦은 것도 한몫했다. 또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포기하는 습성도 제자훈련을 곧바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 목사는 긴 양육과정을 통해 훈련 대상자들을 삼고초려, 십고초려 해서 선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 목사 본인만 너무 힘들었다. 통영 한우리교회가 지방 교회다 보니, 부교역자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8년 동안 부교역자 없이 오 목사 혼자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확신반, 성장반, 제자훈련 입문반, 제자훈련, 목장반 인도 및 설교 준비와 심방 등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했다. 그나마 1기 훈련을 통해 목장 리더 8명이 배출되자, 주일학교 설교는 평신도 지도자인 목사들에게 맡길 수 있었다.

현재 통영 한우리교회는 여자 제자훈련을 4기까지 수료하고, 5기를 준비 중이다. 여자 사역훈련은 3기를 진행 중이며, 남자 제자훈련은 3기를 하다 훈련생들의 잦은 직장 이동으로 잠정 폐강되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한 제자반당 제자훈련을 받은 숫자다. 1기 제자반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2기는 2명, 3기는 1명, 4기는 4명이 각각 수료했다. 여자 사역반도 1기는 8명, 2기는 3명, 3기는 2명이 각각 수료했다. 남자 제자훈련은 1기는 3명, 2기는 1명이 수료했으며, 3기는 아예 폐강되었다.

숫자로만 보면 한 목회자가 들어야 하는 1년이라는 긴 시간과 강도 높은 훈련에 비해 효율성이 월등히 떨어지는 장사다. 그런 면에서 오 목사는 그런 자신을 두고, '실패가 많은 목회자'라고 평가한다. 모든 교회 사역을 오 목사 혼자 다 감당하면서도 2명 때로는 1명을 얹혀놓고 제자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결과만 보면 썩 좋은 성적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잘 훈련시켜 놓은 평신도들도 지역적 특성상 다른 교회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주 생기니 맥이 더 빠질 수밖에 없다. '이래도 제자훈련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석준 목사는 한 순간도 제자훈련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제자훈련 사역자들의 갈등이 왕왕 일어나는 것을 보지만,



제자훈련은 예수님이 하신 목회 본질이기에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목회를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제자훈련에 대한 열정은 희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럴 때마다 오석준 목사는 “옥한흠 목사의 설교가 나를 살렸다”고 고백한다. 사랑의교회가 강남 은평교회였던 시절부터 옥한흠 목사의 설교를 모두 구해 매일 들었다는 그는 혼자 옥한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에 옥 목사의 초창기 설교 테이프를 모두 소장해 그 설교를 듣고 제자훈련을 꼭 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날마다 불태웠다. 경산당리교회 시절에는 ‘한 번 더 교회를 허락하시면 장년 제자훈련을 뿌리 내릴 것’을 다짐하기도 했고, 통영 한우리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다가 힘이 들 때면 다시 옥한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재충전되어 그 힘으로 버티기도 했다.

오석준 목사는 “옥한흠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측까지 하게 됐는데, 정말 예측한 대로 말씀이 나올 때가 많았다”며 “그렇게 맞출 때마다 혼자 신이 나곤 했다”고 웃는다.

또 한번은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케이블 TV에서 설교가 나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귀에 들리기에 꼭 아버지 오석준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아 속으로 ‘우리 아버지 유명해지셨네, TV에 다



오 목사는 “작은 교회지만 한 명이라도 제자훈련을 안하면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 구심점을 잃게 된다”며 “한우리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이것이 나의 진심이다”라고 말한다.

나오시고’라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옥한흠 목사의 설교가 TV에 나오는 것이었는데, 평소 오 목사가 옥 목사의 설교를 하

도 많이 듣다 보니 어느새 옥 목사의 목소리나 말투까지 닮아있었던 것을, 아들이 아버지의 설교로 착각한 것이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한 사람의 영적 거인을 흠모하다 보니 직접 만나지도, 대화 한 번 안했는데도 어느 순간 닮아버린 것이다. 실제로 오석준 목사의 안경 너머의 눈빛과 이마는 생전 옥한흠 목사의 냉철한 안경 너머 눈빛과 많이 닮아 있었다.

오 목사는 옥한흠 목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과거에 발행되던 <평계>부터 <디사이플>까지 모두 모았고, 설교 테이프 및 설교책자, 단행본들도 모두 사서 읽을 정도로 옥한흠 목사의 열광적인 팬 중 한 사람이다.

옥한흠 목사의 설교에는 복음이 있었고, 아들람 굴과 같은 캄캄함 속에서도, 한 명을 앉혀놓고 제자훈련을 해도, 왜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목표와 지향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 동기 부여의 힘은 그 어느 것보다 강렬했고, 지금도 그가 통영에서 유일하게 제자훈련을 지켜내는 목회자로서 남아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 한 명이라도 훈련하는 목회자

한우리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미 “우리 목사님은 한 명이라도 제자훈련을 한다”라는 훈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한우리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저렇게 많이 배우시고, 지적이신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에 있는지’ 스스로도 의아해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다고 한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수료한 사

람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입소문을 내고 있다.

오 목사는 “작은 교회지만 한 명이라도 제자훈련을 안하면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 구심점을 잃게 된다”며 “한우리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이것이 나의 진심이다. 이렇게 할 때 느리지만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심지어 이 지역 노회에서도 처음부터 오 목사가 노회활동 안하는 것을 은근 따돌리는 분위기가 있었다. 혼자 제자훈련 하며, 교회 사역을 다 감당해야 했던 오 목사는 지난 8년 동안 노회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굳어져서 그런지, 이제는 아예 노회 안에서도 ‘오석준 목사는 제자훈련 하는 목사’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었다. 어느새 한 자리에서 한 길을 걷는 제자훈련 목회자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최근에는 목회 연배상 순서가 되어 어쩔 수 없이 노회 서기 일을 맡고 있다. 여기저기서 후배 목회자나 동료 목회자들이 교회 일을 상의해 오기도 하고, 중요 행사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도 생기는데, 지역의 존경하는 목사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심지어 오 목사는 한우리교회 부임한 지 8년이 됐지만 위임 목사가 된 것은 작년 3월이었다. 그동안 교회 안에 중직자인 장로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오 목사는 얼마든지 교인들 중에서 장로를 세울 수도 있었지만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다 마친 사람 중 2011년 12월이 되어서 비로소 장로 1명을 세웠다. 훈련받지 않으면,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임직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오 목사에게는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했지, 위임목사 되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 목사는 목회자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

는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점을 간과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런데 백 명, 천 명, 만 명의 교인들은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명, 두 명, 세 명의 교인들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 목사는 “만약 한 제자반에 12명을 앉혀놓고 계속 1기, 2기, 3기, 4기를 쭉 제자훈련 했다면, 지금의 나처럼 한 기수에 1~2명 앉혀놓고 제자훈련 할 때처럼 한 생명이 소중한 것을 가슴으로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한다.

만약 많은 수의 훈련생들이 훈련받고자 줄 서 있고, 매년 10여 명의 훈련생들이 훈련받았다면 ‘한 영혼 철학’을 고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앞으로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자훈련을 인도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자훈련 사역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 사역에 있어서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삶과 사역에 있어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제자훈련을 할 때도 훈련생들에게 말과 행동의 일치, 삶과 사역의 본이 되기, 손해 보는 사역을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한다.

내가 희생하고 주는 만큼, 받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주게 마련이다. 특히 목회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오 목사는 “항상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자중하며, 바르게 하려고 스스로 기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도 탈색이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말썽을 부리는 교인들이 생기면 ‘너 없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라고 털어놓았다.

그럴 때마다 다시 무릎을 꿇는다는 오 목사는 “제자훈련을 제대로 하는 목회자라면 매년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그것이 고문이 아닌 목회자 스스로의 소양이 되어 성숙하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절제하고도 제대로 된 제자훈련이야 말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고 강조한다.

제자훈련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훈련을 인도하는 목회자라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목회자는 어떤 상황이라도 계속 제자훈련을 할 것이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중도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교회 제자훈련, 반복밖에 길이 없다

은사적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변화된 데에는 무엇보다 제자훈련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밝히는 오 목사. 그는 한우리 교회의 건강도가 굉장히 높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심지어는 한우리교회에 다니는 여 집사의 남편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우리교회만큼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닐 정도다.

그러나 한우리교회도 지금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영이라는 지역적 한계, 더 이상 교인들이 늘 수 없다는 점, 이사로 인해 교인 이동이 잦다는 점 등 취약한 어려운 조건들이 상존하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지 않으면 정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 목사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다섯 가지에 주안을 두고 사역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역시 전도다. 오 목사는 전도 없이는 양육이 없고, 양육 없이는 제자훈련이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도가 항상 먼저”라고 강조한다. 2012년 12월까지 지난 7년 간 매주 지역에서 무료급식을 했지만 전도의 열매가 너무 미미해 다른 곳에 그 힘을 집중하려고 잠정 중단했다. 2005년부터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주에 하던 전도집회인 행복축제

수료생 인터뷰

“딸 잃은 아픔 회복되어

세상 밖으로” 이은미 집사(1기 제자훈련 수료생)

“딸을 잃은 상처로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저를 나오게 해준 건 제자훈련이었어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의 방향을 겪었던 이은미 집사는 남편을 따라 통영에 내려와 지내다가 7살 되던 해 딸을 보내게 됐다. 그 계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한우리교회에 나가게 됐다. 상처로 인해 4년 동안 집에 갇혀 지내며 우울증 초기 증상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

그때 장영숙 집사를 비롯한 한

우리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 집사는 제자훈련에 도전하게 됐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제자훈련을 통해 상처가 회복되면서 보육 교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섬김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 집사는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나와 함께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갈망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자훈련을 인도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자훈련 사역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 사역에 있어서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삶과 사역에 있어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를 이제 세 달마다 분기별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적인 한계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려는 구령의 열정을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일으켜 한다.

두 번째는 균형과 뜨거움이 있는 기도다. 뜨거운 기도 없인 마른 뼈가 되기 십상이다. 한우리교회는 원래 새벽기도, 철야기도 등 기도모임이 뜨거웠으나, 훈련을 통해 말씀의 균형이 잡히자 기도에 힘이 발휘되었다. 지금 한우리교회 안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 또 앞으로 보내주실 한 영혼을 위해 금요일마다 뜨겁게 생명수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

세 번째, 목장사역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오목사는 올 4월까지 8개의 목장 소그룹 체제로 운영하다가 시너지 효과를 높이교자 7개 목장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목장에서는 주일 설교 강론을 교재로 만들어 목장모임에서 귀납적으로

나누고 있으며, 삶에 말씀이 적용되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

목장의 운영 형태는 가정교회 소그룹 형태로 부부가 같이 모인다. 그리고 목자는 절대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스토리텔링식으로 모임을 인도할 것을 매주 수요일 목자반 시간마다 가르친다. 소그룹 리더의 강의식 인도는 자칫 목장 분위기를 지루하게 만들기 때문에 격의 없는 나눔을 통한 공동체 결속과 귀납적 말씀 적용이 이뤄지도록 목자반 인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오목사는 목자들의 영육이 건강해야 생산적인 목장이 이뤄지기에 목자들의 영적 상태를 시시때때로 케어하려고 한다.

네 번째는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이다. 현재 한우리교회 위치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면서 해안 길이라 새 생명이 전도되기에 대단히 힘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좀 더 나은 생명의 부가가치를 위해 교회가 새로운 땅으로 가서 더 많은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다.

다섯 번째는 제자훈련을 계속하는 것이다. 오목사는 한우리교회에서 제자훈련이 빠지면 교회 존재 이유 자체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한우리교회에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서고 목회가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반복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유행하는 목회 방법으로 한방에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별가뱃은 자세로 미친 듯이 제자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훈련 3년을 하고 나니 성도들이 목사로서가 아닌 인간 오석준으로 보게 되었고, 인격 대 인격으로 소통이 이뤄지자 교회 토양작업은 저절로 되었다고 한다. 제자훈련을 멈추면 교회의 건강도는 물론, 목회자 스스로의 건강도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제자훈련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 붙잡고 반복할 것이라고 그는 다짐한다.

동역자가 있으면 덜 외로운 제자훈련

오목사는 같은 경남지역에 마음 맞는 제자훈련 목회자 다섯 명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보수적인 경상도 분위기에서 제자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어려운 조건을 달고 시작하는 것을 잘 알기에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임을 확신한, 말 그대로 동지를 만나 힘들 때마다 돕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서 늘 아쉽다.

경남지역에 제자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복음에 의해 세워진 교회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기 때문이다. 바닷가의 영향을 받는 통영이나 거제도도 교회마다 건강도가 낮은 편이다. 특히 통영지역은 모교회의 분파로 갈라진 교회가 많고, 분열과 이탈, 재분열 등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보다는 인간의 감정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다.

이런 교회 분열에 대해 오 목사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살신성인하는 자세가 없어 바른 교회론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요, 또 성도는 성도대로 제대로 된 말씀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생각은 통영지역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직도 ‘예배와 설교, 심방을 중심으로 쉽게 목회하면 됐지, 왜 힘들게 제자훈련을 해야 하나’ 하며 목회 철학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또 보파리 쌀까 봐’ 두려워하는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이라는 결정타를 던지지 못하기 때문이요, 제자훈련의 핵심인 인격 성숙의 맥을 못 잡고 성경공부 형식으로 훈련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오 목사는 진단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분명한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자기 것으로 확신하고, 교회 안에 토양 변화 작업을 선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래서 오 목사는 경남지역 CAL-NET 모임도 활성화되어 자주 모였으면 싶다. 이를 통해 통영지역에서도 제자훈련 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둘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긴 했으나 올 들어 교회 내 문제로 중단된 상태다. 한번은 노회 서기 일을 하다가 만난 목회자가 <디사이플>을 보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반가워, 제자훈련에 대한 바람과 고충을 함께 나누기도 했었다고 한다. <디사이플>을 정

기 구독해서 볼 정도면 제자훈련에 관심 있는 목회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지의식을 느낀 것이다.

최근 제자훈련 무용론이나 재평가 등의 소리가 들리는 것에 대해 오 목사는 “제자훈련은 왕도가 아니다”라고 일갈한다. 근본이 틀린 사람은 아무리 훈련해도 변화가 쉽지 않음을 훈련을 해 본 인도자들은 다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훈련만큼 한 영혼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사역도 없다고 강조한다.

오석준 목사는 “나처럼 중소도시의 개척 교회, 시골 교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나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나는 지금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자훈련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공짜를 바라겠는가? 제자훈련 하는 목회자들은 소명을 갖고 헌신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한다.

통영이라는 한 자리에서 지난 8년 간 조급해 하지 않고 정도를 걸으며, 제자훈련만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한 오석준 목사. 그는 한 명만 있어도 제자훈련을 해 온 한 사람 사역자다. 인간은 누구나 큰 상급을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은혜를 가지고, 한 영혼과 소수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주님의 입장에 서 큰 상급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은진 기자>

수료생 인터뷰

“제자훈련을 통해 새로워진 가정” 황수현, 김춘선 집사 부부(27기, 17기 제자훈련 수료생)

현재 한우리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황수현 안수집사와 김춘선 집사 부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한동안 신앙생활을 등졌던 아내 김춘선 집사는 첫째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한우리교회로 오게 되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이후 새로 부임한 오석준 목사를 통해 17기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녀는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강한 제자훈련을 거치면서 말씀과 저의 삶이 충돌하는 것이 느껴질 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많았어요. 분명 제 안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

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를 붙잡아줬기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죠.”

특별히 그녀는 제자훈련을 통한 가장 큰 변화로, 남편과의 관계를 꼽았다. 교회에 좀처럼 나오지 않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만 매여 있었던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그녀는 “남편을 황제처럼 대하라는 숙제를 받게 되었고, 말씀을 통한 꾸지람을 들으며, 남편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아내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두 번의 제자훈련을 거친 황수현 안수집사. “첫

번째 제자훈련을 포기했었는데, 그런 저를 오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성장반을 시키시더라고요. 솔직히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항상 ‘황 집사님 다시 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시고, 마음을 잡아주셨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제자훈련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끌고 가는 오 목사의 열정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황수현 안수집사.

그는 “제자반을 통해 좀 더 신앙생활에 있어 진지해졌고, 특별히 물질관이 많이 달라졌으며 아직은 멀었지만 더 알아가고 싶다”고 겸손히 덧붙였다.